삼성전자, 노조간 주도권 경쟁 격화 교섭단위 분리 등 경영 부담 커지나

초기업노조, 지난달 과반 지위 상실
단일화 이해관계 조정 등 과제 부상
업계 "전사 단위 교섭 어려워질 것"

삼성전자에서 전사를 대표하는 과반 노조가 최근 사라지면서 2027년 차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둘러싼 노조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였던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지난달 조합원이 5만6000명대로 줄며 과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기점으로 조합원이 빠르게 이탈한 결과다.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려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삼성전자에는 전사를 대표하는 과반 노조가 없는 상태가 됐다.

과반 지위 상실로 초기업노조의 영향력도 약화됐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과반 노조 및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인정받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직접 지명하며 운영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과반 지위를 잃으면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근로자 대표로서 누리던 독점적 지위도 잃게 됐다.

초기업노조가 과반을 잃은 배경으로는 사업부 간 이해관계 차이가 꼽힌다. 올해 임금협약 과정에서 반도체 사업부 성과를 반영한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이 합의되면서 비반도체 사업부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졌다. 동행노조는 최근 강동·구미·수원 사업장에서 검은색 옷이나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는 단체행동을 벌이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같은 기간 다른 노조의 조합원 수도 빠르게 늘었다. 완제품(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조합원은 5월 초 2600명대에서 6월 19일 기준 2만6000명대로 증가했다. DX 부문 전체 직원 5만1717명의 절반을 넘어선 규모다. 동행노조는 DX 부문 내 과반 확보를 1차 목표로 달성했고 4만명 가입을 다음 목표로 제시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조합원도 같은 기간 2만1000명대로 늘었다.

노조 지형은 빠르게 재편됐지만 교섭 구도는 당장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 교섭 대표노조는 전삼노로 2024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그 지위가 2027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 사측의 공식 교섭 상대는 전삼노이며 다른 노조는 독자적으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변곡점은 전삼노의 교섭대표 지위가 끝나는 2027년 2월이다. 이후 차기 임금·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노조 지형이 지금과 같다면 삼성전자는 과반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절차를 밟게 된다. DX 부문 전 직원이 한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전사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특정 노조가 단독 교섭권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중심의 초기업노조와 DX 중심의 동행노조, 전삼노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업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추진도 변수다. 최승호 위원장은 2027년 교섭에서 반도체(DS) 부문 교섭단위 분리를 노동위원회에 공식 요구하고 분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교섭단이 아닌 초기업노조 단독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부별 실적과 보상 체계 차이가 커진 만큼 과거처럼 전사 단위로 교섭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제네시스 스페셜 리버리가 적용된 GMR-001 #17(왼쪽) #19(오른쪽).

26일 '2026 부산모빌리티쇼' 개막 현대차·BMW 등 차별화 모델 공개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 참가
현대차그룹 총 34대 차량 전시

2년 만에 열리는 '2026 부산모빌리티쇼'가 오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부산모빌리티쇼는 서울모빌리티쇼(홀수 해 개최)와 함께 국내 양대 모터쇼로 짝수 해에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현대자동차, 기아, BMW, 미니, BYD 등 주요 완성차 업체가 참가해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과 다양한 미래 전략을 선보일 방침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서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와 인공지능(AI) 기술 선점을 위한 완성차 업체들의 기술 경쟁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부산모빌리티쇼에서 총 34대의 차량을 전시한다.

우선 현대차는 국내 대표 준중형 세단 신형 아반떼(디 올 뉴 아반떼)를 세계 최초 공개한다. 아반떼는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순위 3위를 기록했으며 북미에서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판매실적(약 14만8000대)을 기록했다. 완전 변경 모델로 출시되는 만큼 국내·외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높은 차량이다. 현대차는 2040㎡(617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차량 8종, 12대를 선보인다. 부스는 자동차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을 경험하는 공간을 콘셉트로 마련한다.

기아는 2040㎡(617평) 규모 부스에서 PV5 기반 신규 모델 3종 등 총 18대의 차량을 공개한다. PV5 파생모델은 패신저 2-2-3, 패신저 프라임, 카고 하이루프 등이다. 외부와 협업한 PV5 어린이 통학차량, 아이스크림 트럭, 이동형 펫 팝업스토어, 바이크 수송차, 모바일 뱅크, AI순찰차 등 6종의 차량도 전시된다.

세계적 내구 레이스인 르망 24시간 완주에 성공한 제네시스는 GMR-001 하이퍼카 실차 디자인을 전시한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소속 GMR-001 하이퍼카 #19 차량은 르망 24시간 완주에 성공한 바 있다.

처음 참가하는 중국 완성차 업체 BYD는 독자 하이브리드 기술인 'DM-i'를 국내 소비자에게 최초로 공개한다. BYD는 자체 친환경 기술인 DM(Dual Mode)을 개발해 2008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인 'F3DM'을 출시했다. BYD의 PHEV 차량은 현재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800만대 이상 판매됐으며 누적 주행거리도 300억㎞를 넘어서는 등 기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순수 전기차만으로 수입차 브랜드 최단 기간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하이브리드차 시장까지 무대를 넓히며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BMW코리아는 지난 18일 공식 출시한 중형 전기 SUV '더 뉴 BMW iX3'를 전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MINI는 전동화와 퍼포먼스 모델을 전시할 방침이다. 차봇모터스는 이번 부산모빌리티쇼에 총 625㎡규모의 대형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와 램 등 특화 브랜드도 참가해 정통 오프로더와 대형 픽업트럭 등 차별화된 모델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정통 오프로더와 최고급 프리미엄 픽업트럭이라는 각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과 차별화된 헤리티지를 영남권 고객들에게 명확히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모빌리티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 차량과 고성능 전동화 기술,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등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단순한 주행거리 경쟁을 넘어 에너지 효율 등이 핵심 경쟁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두산에너빌리티, 국내외 원전사업 순항

북미 가스터빈·중동 EPC 수주
국내 원전건설 움직임 본격화

두산에너빌리티가 북미 가스터빈과 중동 설계·조달·시공(EPC)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 성장 기대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국내 원전 시장 재개와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부지 선정이 맞물리면서 중장기 성장성도 부각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발전설비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미국 데이터센터용 380MW급 가스터빈 7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지만 전력망 증설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워 전용 발전설비 수요가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가스터빈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스터빈은 석탄발전보다 탄소 배출 부담이 낮고 건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당장의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와 맞물려 가스터빈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관련 수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중동 EPC 수주도 실적 성장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8400억원 규모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고 한국서부발전 컨소시엄과는 약 5300억원 규모의 오만 두큼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중동 지역에서는 전후 복구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발전설비 수요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는 원전과 SMR 사업이 꼽힌다. 정부는 최근 총 2.8기가와트(GW) 규모 대형 원전 2기의 건설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을 선정했다. 0.7GW 규모의 국내 첫 SMR 건설 후보지는 부산 기장군으로 정했다. 대형 원전은 2037~2038년, SMR은 2035년 준공이 목표다.

국내에서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이 이뤄진 것은 2011년 이후 약 15년 만이다. SMR 부지가 정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 건설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원전 기자재 공급망을 갖춘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원전 핵심 주기기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에서 공급망 참여를 확대해왔다. 해외에서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사업에서 핵심 부품 공급을 맡았고, 미국 뉴스케일파워·테라파워·엑스에너지, 영국 롤스로이스 SMR 프로젝트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르노코리아, 미래모빌리티 전략 공유

넥스트라이즈 2026

독자 개발 AI 에이전트 베타 버전 공개

르노코리아는 지난 18~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기술·스타트업 행사 넥스트라이즈 2026에서 독자 개발한 AI 에이전트 베타 버전을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과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전시장에서는 르노코리아 개발진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필랑트에 탑재된 AI 오케스트레이터의 베타 버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차의 기능들을 통합해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르노코리아가 내년 공개할 예정인 소프트웨어중심차(SDV)의 모습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장에는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스매시랩스, 발레오 등 파트너사 전시 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양성운 기자

넥스트라이즈 2026 르노코리아 전시 부스.
/르노코리아

LG전자, 복합형 세탁건조기 제품군 확대

워시타워·워시콤보 신제품 출시

LG전자가 대용량·고효율·인공지능(AI)을 앞세운 세탁건조기 신제품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가전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 고객 수요가 커지고 있는 복합형 세탁건조기 제품군을 확대해 차별화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이달 중 국내 최대 용량을 갖춘 'LG 트롬 AI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이하 워시타워)'와 'LG 트롬 AI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이하 워시콤보)'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라인업은 세탁과 건조 용량이 모두 25kg인 워시타워와 세탁과 건조 용량이 각각 25kg, 21kg인 워시콤보다. 두 제품 모두 국내 최대 용량으로 겨울 이불과 같이 무거운 빨래도 손쉽게 세탁·건조할 수 있다.

신제품에는 LG전자가 60여 년간 축적해 온 핵심 부품 기술력이 적용됐다. 세탁조를 정밀하게 움직이는 모터, 온도를 낮추거나 건조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컴프레서 등 주요 부품과 함께 AI 기능을 더해 보다 섬세한 세탁과 건조를 구현했다. 이를 통해 제품 본연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 편의성을 모두 끌어 올렸다. LG전자 핵심 기술 중 하나인 AI DD모터는 세탁물 재질과 오염도, 세탁량 등에 따라 6가지 모션 가운데 최적 모션으로 세탁·건조해 준다.

/차현정 기자 hyeon@